

헝가리 신문 기자의 눈으로 본

„만주국 내 한국인들의 항일 무장 투쟁”

초머 모세(Csoma Mozes)

헝가리 부다페스트 Corvinus 대학
국제관계학과 한국사 전임강사

I. 20 세기 헝가리 정세와 일본 세력확장에 대한 인식

1930년대 후반부터 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 헝가리 왕국¹은 나치 독일, 파시스타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의 연맹국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실은 그 당시 헝가리가 역사적으로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67-1918)의 일원으로 오스트리아와 함께 1차 대전에 참가했다가 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패전국이 되어버린 헝가리는 1920년 트리아농 평화 조약에 따라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들에 의해 헝가리 영토의 약 70%를 주변국에 할양되어 상당한 국토와 국력을 동시에 상실하게 되었다. 헝가리 동남부에 위치한 트란실바니아는 루마니아의 서부 지역으로 귀속되었고,² 북부 지역은 당시 신생국이었던 체코 슬로바키아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약 5백만 명의 헝가리인들이 주변국들의 소수 민족으로 전락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헝가리인들의 마음은 외세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 후 독일은 1차 세계 대전에 참가했던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헝가리의 빼앗긴 옛 영토를 회복하는데 적극 돕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헝가리는 1930년대 후반부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연맹 세력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의 감춰진 나라였던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지속적인 국가 홍보에 힘입어 유럽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해 일본과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폭되었다. 특히 20세기 초 일본 문화는 유럽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이 때 헝가리 사회를 이끌어가던 군 고위층과 상류층 귀족들은 지리적으로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전망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더군다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세력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

¹헝가리 왕국(Magyar Kiralysag) : 1,000년 초대왕 성(聖) 이슈트반(Szent Istvan)-1918년 합스부르크 카로이 4세(IV. Habsburg Karoly). 이후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약 1년 동안 헝가리 공화국이었다가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전환되었다. 1920년부터 1945년까지 다시 헝가리 왕국으로 전환되었고, 호르티 미클로쉬(Horthy Miklos)가 당시의 총독이었다. 호르티 미클로쉬가 통치하던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헝가리는 우익 및 보수적인 체제 하에 있었는데, 군 고위층과 상류층은 좌익과 진보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였다.

² 트란실바니아(Transylvania)는 예로부터 헝가리에서 에르데이(Erdely)로 불리는 지역으로 약 1천년 동안 헝가리의 영토였다. 이 지역 대부분에는 헝가리인이 거주하였고, 나머지는 소수의 독일인과 루마니아인이었다. 루마니아 영토가 된 트란실바니아에는 현재에도 약 160만 명의 헝가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루마니아 전체 인구의 약 7.1%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30년대 초 헝가리-일본 연맹³이 창설되었으며 연맹의 대부분이 상류층 엘리트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시아에 대해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1932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세워진 만주국 내에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왜 항일 무장 투쟁을 벌이는 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였다. 당시 일본 출처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만주국 내에는 무장 범죄자들이 창궐하고 있었다. 일본은 항일 투쟁을 벌이는 무장 세력들을 범죄자로 날조하였던 것이다. 만주국에서 유럽, 특히 헝가리로 그나마 전해지는 정보가 이렇다보니 일본의 거짓 선전이 헝가리 상류층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졌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II. 헝가리 신문기자 게스티의 아시아 여행

1930년대에는 매우 소수의 유럽인이 신생국인 만주국을 여행하였다. 그 중 헝가리의 한 부유층 여성이었던 게스티⁴는 헝가리의 일간지 '페스트 신문'(Pesti Hirlap)에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는 외부 기자였다. 그녀는 1933년 1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배로 인도의 봄베이까지 여행을 하였고, 버마의 랑군, 태국의 방콕을 비롯한 필리핀과 홍콩, 중국의 상하이, 북경, 만주국 그리고 일본과 조선에 이르는 비교적 광범위한 여행을 일 년반 정도 지속하였다.

게스티는 헝가리 상류층과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1933년부터 아시아 여행을 시작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류층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 방문시 귀빈 대접을 받으며 고위층 인사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 특히 인도에서는 인도의 부왕(副王)이 신문기자 신분인 그녀에게 외교관급 예우를 하기도 하였다.

상류층과의 돈독한 친분관계가 게스티에게 가져다 준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시아 여행에서 본국으로 귀국 후 여행 중에 겪은 경험을 토대로 '감춰진 동양'⁵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집필하였는데, 이 때에도 상류층 지인들의 도움으로 당시 헝가리에서 가장 저명한 출판사 'Singer es Wolfner'에서 책을 출판할 수 있었다.

'감춰진 동양' 속에 기록된 아시아 여행 중 일본을 떠나 조선에서의 여행은 특히 흥미롭다. 게스티는 일본에서 배로 부산까지 이동한 후 서울에 가게 되었는데 그 때 그녀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독립협회와 대한기독교 청년회연맹(YMCA)를 조직한 좌옹(佐翁) 윤치호⁶였다.

³헝가리-일본 연맹(A Magyar-Nippon Tarsasag). 1930년대 초 '헝가리-일본 연맹'의 설립 이후 연맹의 주관으로 헝가리 내에서 일본 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와 전시회가 많이 개최되었다.

⁴게스티 율리어(Gesztli Julia.) 정확한 출생 년도는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00년대 초 출생, 2차 세계 대전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⁵감춰진 동양(Rejtelmek Kelet, 게스티 율리어, Singer es Wolfner 출판사, 부다페스트, 1937년)

⁶윤치호(尹致昊, 1865-1945). 한때 총리대신 비서관을 거쳐 학부협판(學部協辦)이 되었고, 서재필(徐載弼), 이상재(李商在)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하였다. 1898년 독립신문사 제 2대 사장을 역임하였고, 1910년 대한기독교 청년회연맹(YMCA)을 조직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 변절, 일본제국의회의 칙선 귀족원의원을 지냈다.

게스티는 윤치호의 손님으로 여러 날에 걸쳐 그의 본가에 머물렀다. 1937년에 출판된 저서 '감춰진 동양'에는 윤치호 본가에 머물면서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윤치호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게스트는 그와 비교적 심도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고 전한다. 뿐만아니라 그는 게스트에게 조선의 전통 음식을 대접하고 한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그의 집에 있는 온돌을 보여주었다. 다른 문화권의 먼 유럽에서 온 외국인에게 온돌은 신기한 대상이었을 뿐만아니라 그 쓰임과 효과가 경이로움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개장들도 보여주며 훗날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하였다.

게스티는 윤치호와 동행하여 서울 시내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때 윤치호와 함께 찍은 사진과 그로부터 받은 친필 환영의 메시지를 저서 '감춰진 동양'에 수록하였다.⁷

또한 윤치호는 조선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언급하였다.

„지난 100 년 동안 주변의 외국 세력들이 조선 반도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하였다. 그 외국 세력들이란 다름아닌 일본, 중국, 러시아였다. 조선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점차 국력이 쇠퇴하였고, 따라서 더이상 독립국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외국 세력들 중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조선은 만주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본에게 조선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이후부터 조선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겪는 동안 조선은 스스로 국명(國名)을 '조센(Chosen)'으로 바꾸었고, 수도의 명칭은 '서울'에서 '게조(Keijo)'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일본 총독이 조선에서 통치하고 있다.(중략),,

III. 게스트의 눈으로 본 만주국 내의 무장 투쟁

게스티는 서울에서 기차로 만주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매우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철로를 따라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수 만 명의 긴 행렬이 만주국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 생긴 만주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나아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만주국에 본국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게스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기차가 조선과 만주국이 맞대고 있는 국경에 도착하자마자 게스트는 또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였는데 그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기했다.

„국경의 기차역에는 수많은 일본 경비병들이 주둔해 있었다. 그들은 신생국인 만주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매우 삼엄하게 검사하였으며, 기차 내에서도 경비병들이 승객들의 여권을 검사하였다. 그때 나는 유일한 유럽 승객이었다. 세 명의 경비병이 내가 있던 객차 내 부스까지 들어왔고 나는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했다.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목적으로 언제까지 만주국에서 체류할 것인가?(중략)

일본 출처의 자료에 의하면 만주국에는 약 5 만 명의 무장 범죄자들이 광범위하게 창궐하고 있다고 한다. 국경에서 무장한 많은 일본 경비병들을 보니 그 말을 이해할

⁷ 윤치호가 게스트에게 직접 써 준 환영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Seoul, Korea. June 20. 1934 '벗이 잇서 먼데서 오면 즐겁지 아니하라' 1934년 6월 20 윤치호('감춰진 동양', 172 쪽)

수가 있었다. 특히 상당수의 경비병들이 기차에 올라 승객들을 검사한 후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승객들과 함께 만주국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고 신기하기만 했다.(중략)”⁸

그러나 이때 게스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5만여 명에 달하는 무장 범죄자들이 사실은 범죄자가 아니라 항일 투쟁을 하는 중국인과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 항일 투쟁에 김일성, 김책, 최용건 등이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일본이 홍보하는 그럴싸한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나마 유럽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의 대부분이 일본이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IV. 발린트 기자의 견해로 본 만주국 내의 무장 투쟁

발린트⁹는 1930년대 헝가리의 유능하고 촉망받는 신문 기자였다. 그는 진보적, 좌파적 성향의 '페슈티 너플로(Pesti Naplo)'의 기자였으며 Arbeiterzeitung, Frankfurter Volksstimme 등의 독일 좌익 신문에 기사를 쓰기도 하였다. 또한 영국 'Daily Express'지(誌)의 특파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발린트는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았으며 아시아에도 관심이 많았다. 또한 영국과 미국 출처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만주국의 발전 등에 대해 나름대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위험'¹⁰이라는 그의 저서에서는 일본 세력의 확장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다.

„일본 제국이 만주국을 평화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만주국의 평화적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그곳에서 창궐하는 범죄 조직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범죄 조직은 범죄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인을 비롯한 다른 게릴라 조직들이며, 이들이 벌이는 투쟁에는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범죄자들 중 실제 범죄자는 극소수이나 일본 통계에 의하면 투쟁자들 전체가 범죄자로 치부되고 있다.

사실 일본의 이러한 통계는 매우 상세하고 흥미롭기까지 하다. 한 예로 1945년 한 해에 39,151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총 1,783,880명의 강도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또한 이들 강도를 체포하기 위해 24,150명의 일본군이 투입되었다. 그 중 13,338명의 일본군이 사망했고, 11,8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뿐만아니라 2,073명의 일본군이 강도 조직에 붙잡혔다는 통계가 있다.(중략),¹¹

⁸ '감춰진 동양', 176 쪽

⁹ 발린트 조르지(Balint Gyorgy, 1906-1943). 부다페스트 출생. 진보적 지식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헝가리의 능력있는 신문 기자이며 칼럼니스트, 비평가였다. 진보적 성향의 그는 2차 세계 대전 중 1942년에 부다페스트의 영창에 수감되었다가 舊 소련의 한 지방(現 우크라이나 지방)에 포로 신분으로 강제 노역에 보내졌고 그 곳에서 사망하였다.

¹⁰ '아시아에서의 위험'(Veszely Azsiaban, 발린트 조르지, Cserepfalvi 출판사, 부다페스트, 1940년)

¹¹ '아시아에서의 위험' 69-70 쪽

발린트는 만주국 내의 투쟁자들이 범죄자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실은 항일 투쟁 세력이었다고 처음으로 기술한 장본인이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가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발린트의 저서는 1940년에 출판되었으나 그 안에는 앞으로의 일본이 처할 운명을 예견하는 기록도 담겨 있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해왔다. 드디어 1937년에 전쟁이 발발하였고,¹²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전쟁은 조만간 시작될 것이며, 일본에게 이 전쟁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이다.,¹³

위의 기록이 저서의 출판 당시 1940년에 쓰여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린트가 예언한 '진짜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2차 세계 대전으로, '일본에게 닥칠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련'은 다름아닌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본 패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발린트는 그의 저서가 출판되고 나서 3년 후인 1943년에 사망하였는데, 사전에 이런 전운(戰運)을 감지하고 훗날 닥치게 될 일본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그의 저서에 예언적인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V. 아시아에 대한 헝가리 사회 계층 내의 상반된 인식과 기록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 헝가리에서는 아시아에 관한 두 권의 서적이 출판되었다. 이 두 권의 서적은 만주국 내 항일 투쟁에 대하여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기록은 당시 헝가리 사회계층에 따른 사고방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지배계층이었던 군 고위층과 상류층은 일본의 세력확장에 매우 호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을 높이 평가하였다. 전체적인 상류층의 의식이 이렇다보니 당시 상류층에 속해있던 게스트 역시 일본에 호의적이었으며 따라서 일본이 선전하는 왜곡된 정보를 의심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의 저서 '감춰진 동양' 역시 이러한 상류층의 의식을 반영한듯 상류층 수준에 걸맞게 저명한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으며, 다수의 사진과 인쇄물 등이 수록되는 등 책 자체도 비교적 고급스럽게 인쇄되었다.

이에 비해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신문 기자나 작가 등 재야 진보주의 지식인들은 발린트처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훨씬 더 상세하고 비평적인 자세로 주시하였다. 하지만 재야에서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는 상류층의 그것에 비해 고요하였다. 따라서 아주 소규모의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 사진 한 장 수록되어 있지 않은 발린트의 저서는 보수적인 헝가리 사회 내에서 진보적인 그가 처한 환경을 반영하듯 애처로워 보인다.

헝가리 내에서 아시아의 일본 제국과 일본에 대항하는 투쟁에 관한 진실을 자세히 기록하는 대다수의 서적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나 출판되었다.

¹² 중일전쟁

¹³ '아시아에서의 위협' 20쪽.

북한 서적의 번역본 역시 1940년대 말부터 헝가리에서 출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서적들은만주국 내 항일 투쟁을 마치 김일성이 단독으로 지휘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참고 문헌

게스티 울리어, 감춰진 동양(*Rejtelmes Kelet*), Singer es Wolfner 출판사, 부다페스트, 1937년.

발린트 조르지, 아시아에서의 위험(*Veszely Azsiaban*), Cserepfalvi 출판사, 부다페스트, 1940년.

초머 모세(Csoma Mozes) 역주,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 집문당, 서울, 2005년(Barathosi Balogh Benedek, *Korea, a hajnalpir orszaga*, Budapest, 1929)

한국인물대사전, 중앙일보, 서울, 1999.

Lee Hyun-hee, Park Sung-soo, Yoon Nae-hyun, *New History of Korea* (Translated by Lee Gilsang),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eoul, 2005.

Nahm C. Andrew,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Hollym, New Jersey and Seoul, 1988.